

# “섬별 테마숲 만들어 ‘힐링 섬투어’ 육성”

목포서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심포지엄'

역사·전설 살린 숲 스토리텔링 주민 참여 통해 소득과 연계 숲가꾸기 롤모델로 키워야

“아름다운 섬 숲·섬 나무 등을 스토리텔링해남도 여행의 테마로 활용해야 한다.”, “방풍·경관·치유 등 숲의 기능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소득과 연계한 경제적 측면을 소홀히하면 숲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진다.”

지난 2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심포지엄'에서 서남해안 섬지역 해안경관숲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에코 푸른숲 전남, 서남해안 경관숲을 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박종호 산림청 차장의 '자치분권 시대 산림의 역할'이라는 기조강연과 박석근 순천대 교수의 '서남해안 난대림 복원 및 해안경관립 조성 방안', 송경일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의 '에코 푸른숲 전남, 서남해안 경관숲도 품다', 강제운 (사설연구소장)의 '남도 섬과 숲'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종호 차장은 기조강연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추진으로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숲을 만나고 숲



지난 2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심포지엄'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종식 목포시장, 박종호 산림청 차장, 박석근 순천대 교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 계획"이라며 "특히 남북협력의 산림분야 역할과 폭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석근 교수는 "우리나라 난대림 훼손 역사와 난대림이 지닌 역사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100년을 목표로 난대림 복원기술 정립과 난대림의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산림사업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제운 소장은 "남도 섬과 숲의 기능은 방풍림·방사림·어부림·당숲·비보림·우실 등 다양하다"며 "섬 특유의 향토문화역사성을 보유한 난대림으로 보전·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송재도 전북대 교수는 "숲은 조성 목적에 따라 방풍·경관·치유·소득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궁극적으로 소득과 연계한 경제적 측면을 소홀히하면 숲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진다. 지역민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필수 광주일보 전남본부장은 "전남도 민선6기 '숲 속의 전남'이, 민선7기 '에코 푸른숲 전남'으로 이어져 단계가 바뀌어도 좋은 사업은 계속 추진된다는 점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며 "섬지역 등 농어촌 권에선 역사와 전설이 있는 숲을 발굴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현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 차장은 "서남해안 경관숲 조성에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 참여가 우선되도록 유도하고, 국립공원 내 훼손지역을 우선 복원해야 한다"며 "무인도에서 숲을

훼손하는 방목 동물 제거, 포트묘목을 활용한 나무 식재와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미숙 전남도 섬 가꾸기 전문위원은 "섬에 가면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나무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섬숲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필요하다"며 아름다운 섬숲, 섬 나무 이야기를 통해남도 여행의 테마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민선7기 공약인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과 '가고 싶은 섬 가꾸기'를 연계한 서남해안 섬별 향토문화·역사성을 지닌 경관 테마숲을 조성하는 '휴식·힐링의 섬투어' 기반을 마련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가 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목포시의회 주차장 민원인 전용 개방

그동안 목포시의회 주차장이 비좁아 회기 중에는 의원들 전용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종종 주차비 등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목포시의회는 의회 건물 앞 주차장을 민원인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 방문 시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로,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기존 15면에서 28면이 추가된 총 43면의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앞으로 의회 건물 옆 주차공간

도 추가 확보해 민원인 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의회동 청사 1층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시민민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민원실은 시민들이 시의원들과 일대일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으로 꾸며져 앞으로 시의회의 시민 간 새로운 소통의 통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은 "주차공간이 좀 더 넉넉해져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회에 의견이나 민원이 있을 시 의회 청사 1층에 마련된 시민민원실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 '여러분이 목포의 얼굴'...음식점 친절서비스 정착 총력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와 천사대교 개통을 앞두고 다시 찾고 싶은 '남한항구 목포 건설'을 위해 음식점 친절 서비스 정착 총력전을 펼친다.

목포시는 4일 '여러분이 목포의 얼굴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관내 2500여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함께 영업주 자정노력을 견주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북항 상인회, 해양수산복합센터 상인회, 북항 씨-푸드 타운 상인회, 씨-푸드 2차상인회 등 4개 단체와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특히 시는 '여러분이 목포의 얼굴입니다' 친절 안내문 5000매를 제작해 배부하고 위생단체 단계별 자정노력 확대방

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매월 한 차례씩 위생단체와 소비자 감시원간 개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북항 회 타운과 여객터미널 등지에서 친절 표현력·바가 지요금·고객행위 근황·메뉴안내 오류 등을 위주로 현장 맞춤형 친절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주 자정노력도 전개된다. 한국의식업중앙회 목포시지부는 ▲손님맞이 환대분위기 조성 ▲친절한 미소와 단정한 복장 ▲업소 내 청결유지 등을 결의한데 이어 북항 회 타운은 ▲스마일 명찰패용 및 미소 짓기 운동 ▲통일된 복장 착용 (위생복, 위생모) ▲바가지요금·고객행위 저율증랑 속이기 근절 상호노력 등 자정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 목포 30리 바닷길 연결 산책로 조성한다 평화광장~목포해양대 5개 구간 2022년 완료

'남한 항구 목포'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내건 목포시가 관내 해안 30리 길을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목포 30리 바닷길 산책로 조성' 사업은 평화광장에서 출발해 북항 해양대학교에 이르는 30리 바닷가에 산책로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목포시는 4일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인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 평화광장~해양대학교 간 총 11.7km를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특색 있는 공간과 시설을 도입, 다양한 체험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목포만의 독창적인 해안경관 연출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구간은 평화광장~갯바위·국립 해양문화재단연구소·문화예술회관, 2구간은 탄성~남해환경관리소·남항, 3구간은 삼학도~호안수로·노벨평화상 기념관·어린이 바

다과학관·요트 마리나, 4구간은 동명동 물양장·여객선 터미널·수협 공판장, 5구간은 목포 내항 친수공간~개항 백년 탑·신안비치 호텔·유달 유원지·해양대학교까지로 총 5개 구간이다.

특히 시는 이들 5개 구간을 낭만의 거리, 연인의 거리, 해변의 거리, 포차의 거리 등 명칭 공모를 거쳐 구간별 명칭을 부여하고, 평화광장 등 시설이 잘 갖춰진 일부 구간은 경우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수협 일대와 삼학도 석탄부두 구간은 이전이 예정돼 있고 남항은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돼 이들 구간은 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2019년~2022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80여억원 정도가

목포 30리 바닷길 연결 산책로 조성사업



소요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말 '30리 바닷길 산책로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목포시는 개발방향·공간구성 체계 설정, 구간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사람 중심'의 산책로 조성, 사회적 약자 배려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도입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걷고 싶은 바닷길 산책로 조성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종식 목포시장은 "충추는 바다분수, 갯바위, 삼학도 등 주변 관광지 와 연계된 목포의 대표적 힐링 코스이자 낭만과 멋이 깃든 명품 산책코스가 탄생돼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o@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3개월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 430-8801